

# “반공영화 이해하나 과격한 표현은 섭섭”

## ‘인천상륙작전’ 해군 대위 ‘장학수’ 역 맡은 이정재

“그런데 저도 연기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기에 애착이 가요.” 배우 이정재(43)는 신작 ‘인천상륙작전’(감독 이재한)에 함께 출연한 할리우드 스타 리엄 니슨에 대해 “그 나이에도 여전히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대단했다”고 말하며 이같이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나도 저런 배우가 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다”고 했다.

이정재는 열연한다. ‘하녀’(2010) 이후 그의 연기를 꾸준히 본 관객이라면 알 수 있다.

다양한 장르, 각기 다른 캐릭터를 오가는 이정재는 누가봐도 최선을 다해 연기한다. 쉬운 연기는 없었다.

폭력 조직에 잠입한 경찰(‘신세계’),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려는 삼촌(‘관상’), 조국을 버린 변절자(‘함살’) 모두 배우로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는 역할이었다.

‘인천상륙작전’도 마찬가지다. 그가 연기한 해군정보부대 대위 ‘장학수’는 북한군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 인천 시령부에 잠입하는 인물이다.

인천지부 사령관 ‘팀계진’(이범수)을 속이고 첩보작전을 성공시켜야 하는 특수 임무를 맡은 만큼, 시종일관 긴장감 유지해야 하는 캐릭터다.

그는 “이런 연기를 쫓아온다는 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어떤 날에는 촬영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오면, 뺨이버리기도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집중하는 것 자체, 또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재밌다”며 “그래서 다소 긴장도가 높은 인물을 계속해서 맡게 된다”고 말했다.

장학수를 연기하는 이정재의 키워드는 두 가지였다. ‘책임감’과 ‘리더’.

책임감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을 소재로, 실존했던 인물을 연기하는 데서 오는 일종의 부담감이다. 그가 연기한 장학수는 인천상륙작전의 발판이 됐던 첩보작전 ‘X-RAY’를 이끈 임명래 중위 가 모델인 인물이다.

이정재는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조심스러웠다”고 했다. 그는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노고에 누가 되지 않으려는 책임감을 가지고 연기했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건 그가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이정재는 “이 작품이 실화이고 내가 연기하게 될 인물이 실존했던 분이라는 점에서 가장 끌렸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사실을 영화를 통해 전한다는 것도 좋았다. 이런 좋은 일에 동참한다는 마음도 있었다”고 했다.

이정재에게 이번 작품이 도전이라면 도전일 수 있었던 건 필모그래피 사상 처음으로 ‘리더’ 역할을 맡았다는 점이다. 장학수는 그의 부대원들과 함께 인천에 잠입해 들어간다. 부대원들은 철저히 장학



27일 개봉한 영화 ‘인천상륙작전’ 장학수 역의 배우 이정재

수의 지시에 의해 움직인다.

그는 이와 관련 “대사 한 마디를 내뱉더라도 이전보다 더 설득력 있게 들릴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다”고 했다. 이정재는 “단순하게 세계 말한다고 해서 인물의 말에 권위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톤을 찾아가는 게 중요했다”며 “장학수를 상황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부대원들의 신뢰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인물로 만드는 게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정재의 열연에도 불구하고, ‘인천상륙작전’은 여전히 혹평에 시달리고 있다. 평단은 이 영화를 두고 ‘시대착오적인 반

공영화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정재에게 이 부분에 관해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이정재는 “걱정을 정말 많이 했다”며 웃었다. “어떤 의미로 하는 말인지 아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 영화에 대한 그런 시선, 그 또한 소중하죠. 그런 과정을 통해 더 좋은 영화가 나오는 거니까요. 하지만 너무 과격한 표현을 쓰시는 걸 보면 좀 섭섭하더라고요.(웃음)”

‘인천상륙작전’은 개봉일인 27일 46만명이 넘는 관객을 불러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김민근기자

### 전북체육회, 지방체육진흥사업 선정 사업비 5억 7,300만원 지원받아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지방체육진흥사업에 선정된 지방체육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지방체육진흥사업은 지방의 종목활성화와 실업팀 육성을 통해 지방체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으로 전북도는 지난 21일 최종 선정된 5억 7,300만원을 받게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비는 도내 시, 군청 실업팀과 전북체육회 실업팀의 활성화를 위해 훈련비 정비비, 국내 및 해외대회 과제비용 등으로 지원 될 예정이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스포츠진흥처장은 “이번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많은 대학팀과 실업팀들의 훈련여건 개선과 경기력향상을 위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전북체육회에서 도 대학 및 실업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이고 앞으로 체육관련 국비지원사업에 적극참여 하여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 육상 국가대표 후보 선수단 익산시 하계합숙훈련

KTX 익산역 개통에 따른 접근성의 편리와 우수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갖춘 익산시가 전지훈련장으로 꾸준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8월14일까지 33명의 육상 투척종목 국가대표 후보선수단은 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15일간 하계합숙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이번 합숙훈련과 연계하여 고등학교팀 선수 20여명이 익산에서 합숙훈련을 한다.

익산이 전지훈련장으로 각광을 받는 이유는 KTX 개통으로 교통의 접근성이 편리해지고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은 물론 한국신기록 보유자 해머던지기 강나루 선수 등 우수한 선수들이 익산시 소속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국가대표의 꿈을 꾸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유망주들이 국가대표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펼쳐 익산이 전국 최고의 전지훈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 ‘올림픽 종합순위 10위 목표’ 한국 선수단 본진 리우 입성

## 입국장에 모인 교민들 “대한민국” 연호 정몽규 선수단장 “잘해서 국민 성원 보답”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금메달 10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순위 10위 안에 든다는 목표를 내건 한국 선수단 본진이 리우에 입성했다.

정몽규 선수단장을 비롯한 부부임원 23명과 체조, 펜싱, 역도, 핸드볼, 복싱, 사격, 조정, 수영 등 8개 종목 68명 등 선수단 88명, 코리야하우스 운영단, 각 종목별 협회 관계자 등 총 160명이 28일(한국시간) 갈레아 국제공항을 통해 리우에 입성했다.

현지시간으로 27일 오후다.

전세기를 이용한 선수단은 인천을 떠나 두바이를 경유해 약 25시간 만에 리우에 도착했다.

선수단 트레이닝복을 맞춰 입고 공항에 도착한 선수단은 입국심사와 등록절차를 밟은 후에 입국 게이트에서 교민

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날 상파울루에서 교민 90여명이 버스 2대로 이동해 올림픽에 출전하는 태극전사들을 환영했다.

선수단 도착 2시간여 전부터 입국장에 모인 교민들은 태극기와 브라질 국기를 흔들고, 사물놀이패와 함께 “대한민국”을 연호하며 분위기를 올렸다.

정몽규 선수단장과 본진 기수를 맡은 여자 핸드볼대표팀의 오영란(인천시청), 조영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선수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교민들의 응원 소리는 더 커졌다.

당초 본진 기수는 올림픽 3연패에 도

전하는 사격 국가대표 진종호(k)가 하기로 했지만 사격대표팀 입성에 따라 앞서 출국한 까닭에 핸드볼 국가대표이자 최고령 오영란(인천시청)이 맡았다.

선수단은 장거리 비행으로 지친 기색이 엿보였지만 교민들의 열렬한 환호에 미소로 답했다.

정몽규 선수단장은 “벌리까지 왔다. 준비한대로 열심히 잘해서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며 “교민들께서 많이 오셔서 선수들도 기분 좋게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대단히 감사하다”고 했다.

기수 오영란도 “실감이 나지 않았는

데 교민들의 환영을 들으니 조금 떨린다. 이제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앞서 요트, 축구, 유도대표팀이 브라질에 도착해 리우와 상파울루 등에서 전지훈련을 펼치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28일 여자배구대표팀, 29일 세계 최강 양궁대표팀이 리우에 도착한다. 30일에는 펜싱대표팀이 입성한다.

상파울루에서 마지막 담금질 중인 효자종목 유도 선수단은 다음달 3일 도착 예정이다.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0개 이상, 하계대회 4연속 10위권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민근기자

### 드라마 ‘모래시계’ 시즌2 제작 가능성

1995년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 ‘모래시계’ 시즌 2 제작 추진 소식이 알려졌다.

27일 방송계에 따르면 ‘모래시계’의 송지나 작가가 ‘모래시계’ 시즌2 제작을 위해 대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놉시스는 9월께 나올 예정이다.

제작은 신생 드라마 제작사인 현무엔터테인먼트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섭외는 시놉시스나 나온 이후 돌입할 계획이다.

방송 당시 시청률 6%를 넘긴 ‘모래시계’는 ‘귀가시계’로 불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여명의 눈동자’ 콤플렉스 송 작가와 김종화 PD가 의기투합했다. 1970~1980년대 격변의 근현대사를 다뤘다.

최민수 고현정, 박상원 등 당대 톱스타가 출연했다.

보디가드 역을 맡았던 당시 신인 이정재는 톱스타로 떠올랐다.

/김민근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공동발견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